

# 피아노 교육에서 《체르니 100번 연습곡》의 연주 기술 분석과 활용 실태 조사

권 수 미

1. 글을 시작하며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 (3) 연구의 제한점
2. 문헌 연구
  - (1) 손가락 학파(Finger School) 시대 체르니의 다양한 연습곡 교재 개발과 공헌
  - (2) 문헌 조사를 통한 ‘간추린 체르니 100’ 국내 출판 현황
3. 실태 조사 및 연주 기술 분석
  - (1) 《체르니 100번 연습곡》 사용 실태 조사
  - (2) 《체르니 100번 연습곡》 연주 기술 분석
  - (3) 《체르니 100번 연습곡》에서 유사한 연주 기술 분석에 근거한 군집 분류
4. 글을 맺으며

## 개 요

본 연구는 국내 피아노 교육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체르니 100번 연습곡》(Op. 139)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체르니 100번 연습곡》을 연주 기술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피아노 지도자와 학습자들에게 효율적인 연습곡 활용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 일차적으로 국내 피아노 교수학 전공 4개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136명을 대상으로 《체르니 100번 연습곡》의 사용 실태 조사를 통하여 피아노 교사들이 인식하는 체르니 연습곡의 교육적인 제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체르니 100번 연습곡》을 통해 초급 수준에 갖춰야 할 기본 피아노 연주 기술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출판된 피아노 교수학 관련 문헌 중 초급 피아노 교육에서 다뤄야 하는 피아노 연주 기술을 서술하고 있는 문헌들을 수집하고, 총 28개의 연주 기술을 발췌하여 체크 리스트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이어 각 연습곡이 요구하는 연주 기술을 복수 응답하여 총 669개의 코딩을 수거한 후, 그 유사성에 근거한 계층적 군집 분류를 통해 공통된 연주 기술을 포함하는 연습곡들끼리 대분류와 소분류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는 피아노 교사와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각 연습곡의 학습 목표를 제공함은 물론, 같은 군집 안에서 연습곡을 선택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동일한 연주 기술의 반복 학습을 줄이고 학습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

주제어: 피아노 교수학, 피아노 교수법, 교재 자료, 체르니 연습곡, 연주 기술

## 1. 글을 시작하며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악을 배우기 위하여 많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선택하는 악기 중의 하나가 피아노이다. 피아노 교육이 음악 교육을 위한 첫걸음으로 인식되고 보편화가 된 이유에 대하여 안미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피아노는 그 자체가 완전한 악기이다. 우선 다른 악기에 비해 음역이 넓고, 손가락, 손, 팔, 몸통, 터치와 페달, 그리고 지성이 총체적으로 결합하여 선율과 선율을 지지해주는 화성을 연주할 수 있다. 피아노는 작곡가, 음악 이론 교사, 그리고 성악 혹은 다른 악기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악기이기도 하다. (...) 또한 다른 악기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도 1-2년의 피아노 학습은 탁월한 기초를 제공하기도 한다.<sup>1)</sup>

위와 같이 피아노 교육이 갖는 장점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에서 피아노를 배운다. 소수의 사람은 직업적인 음악 세계에 종사하기 위하여 피아노를 학습할 지도 모르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추어 음악인으로서 자아실현, 음악적 성장, 취향 및 지식을 기르기 위하여 피아노를 배운다. 효율적인 피아노 학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음악을 이해하여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음악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초급 수준의 학생들은 건반에서의 악보 읽고 연주하기에 급급하여 음악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음악 이론, 화음 등에 대한 학습을 중급 혹은 상급 수준으로 미루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

1) 안미자, 『피아노 어떻게 배울까』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7), 23.

실상 음악 연주에서는 어떤 악기든 초급 수준과 상급 수준에 차이가 없다. 연주에 필요한 정신적, 신체적 기능은 초보자나 상급 수준의 학생이나 똑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sup>2)</sup>

결국 이를 위하여 최근의 피아노 교육은 연주 기술력 한 측면만을 부각시켜 개발하기보다는 초급 과정부터 음악의 구조를 이해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음악성 개발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포괄적인 음악성(Comprehensive Musicianship) 개발이란 음악 교육을 통하여 단지 연주 기술력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초견, 건반 화성, 반주, 음악 분석, 청음, 스케일, 아르페지오, 테크닉, 전조, 조바꿈, 즉흥 연주, 암보 능력 등을 포괄적으로 개발시키는 것을 말한다.<sup>3)</sup> 이를 반영하듯 1970년 이후 지금까지 출판되고 있는 대다수 피아노 교재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주로 사용하는 레슨교재 이외에 음악 이론, 테크닉, 초견, 앙상블 등과 같은 병행 교재가 동시에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피아노 교육의 교재 활용을 살펴보면, 외국 교재의 번역판이나 국내판 교재를 불문하고, 출판사가 포괄적인 음악성을 개발시키기 위한 의도로 심혈을 기울여 다양한 병행 교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슨 시간의 부족, 지도 교사의 새로운 교재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유로 주 레슨 교재 한 권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신 주 레슨 교재 한 권만으로 부족한 테크닉 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피아노 교재 자료 중, 체르니 연습곡은 유독 우리나라 피아노 교육에서는 빠지지 않고 피아노 교육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처럼 오랫동안 애용되고 있다. 피아노 교사뿐 아니라 학부

2) R. Pace, "Position paper," *National Conference on Piano Pedagogy* (October 1982), 2.

3) E. D'Arms, "Contemporary Music project," *Music Educators Journal* 59 (1973), 36; J. Lowder, "Evaluation of a sight-reading test administered to freshman piano classe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1 (1973), 68-73.

모들 사이에 있어서도 초급·중급·상급과 같은 피아노 학습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구체적인 연주 능력이 아닌 체르니 100번, 30번, 40번 등 교재 명으로 학생의 수준을 가늠할 정도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sup>4)</sup>

하지만 정작 피아노 교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초급 피아노 교재의 대명사로 불렸던 ‘바이엘’만큼, 아니 그보다 더 오랫동안 많은 피아노 교육자 및 학습자들에게 활용되고 있는 체르니 피아노 연습곡이 과연 얼마나 그 교육적인 의의와 학습 목표에 충실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미지수이다.

최근 들어 대부분의 국내 음악 출판사에서는 ‘간추린 체르니 100’이라는 제목으로 원래 작품에서 편집자 임의대로 20~40여 개의 연습곡만 발췌하여 유사한 제목으로 출판하고 있다. 이때, 각 출판사에서 나름대로 원곡에서 발췌하고 편집한 기준이 있겠으나, 학습자 입장에서는 모호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출판된 수십여 편의 ‘간추린 체르니 100’이 제각기 다른 번호의 연습곡들을 제시하고 있어 학습자에게는 교재 선택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시대적으로 피아노 교본의 필요성의 정도가 다르고 현재의 상황은 음악성과 기술을 따로 생각하지 않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체르니 교본에 지속적으로 천착하는 우리나라 피아노 교육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습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연주 기술을 고르게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원래 작품집에서 간추린 연습곡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피아노 교육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체르니 100번 연습곡》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를 연주 기술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피아노 지도자와 학습자들에게 효율적인 연습곡 활용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권수미, “한국 피아노 교육에서의 반주교재 활용 실태조사,” 『음악과 민족』 39 (2010), 315-344.

## (2)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피아노 교사들이 즐겨 사용하는 체르니 연습곡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7문항으로 구성된 1차 설문지를 개발한 후, 본 연구자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피아노 교수학 전공 석·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 중 피아노 지도 경험이 10년 이상이 되는 10명의 피아노 교사들을 대상으로 1차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 얻어진 응답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문항의 구성과 내용이 연구의 목적을 구하기에 적합하도록 설문지 문항의 수정을 거친 후, 최종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2차로 개발된 최종 설문지는 서울·경기 지역에 피아노 교수학 전공이 개설된 8개교 9개 대학원(경원대, 상명대, 세종대 일반 대학원, 세종대 특수 대학원, 수원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세대) 중 4개 대학원 학생들(상명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세대)에게 150부를 직접 배포하고 136부를 수거하여 90%의 수거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연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국내에서 출판되고 있는 ‘간추린 체르니 피아노 연습곡’들의 구성 현황은 어떠한가?
- 《체르니 100번 연습곡》에서 각 연습곡이 요구하는 연주 기술은 무엇인가?
- 《체르니 100번 연습곡》에서 유사한 연주 기술에 근거한 군집 분류가 가능한가?
- 체르니 연습곡을 학습할 때, 수준별로 병행하는 교재는 무엇인가?
- 체르니 연습곡 지도를 통하여 어떤 유형의 학습 능력 발전을 기대하는가?

이를 위하여 문헌 연구에서 체르니(Carl Czerny, 1791-1857) 시대 피

아노 연주 기술의 역사적인 관찰과 현재 국내에서 출판되고 있는 ‘간추린 체르니 100 연습곡’의 구성과 문제점 등 현황을 조사하고자 한다. 본론에서는 《체르니 100번 연습곡》의 각 연습곡 학습에 요구되는 연주 기술을 분석하고 유사한 연주 기술을 요구하는 연습곡들을 묶어 군집화하고자 한다. 이때 100개의 연습곡을 통해 초급 수준에서 갖춰야 할 기본 피아노 연주 기술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출판된 피아노 교수학 관련 문헌 중 피아노 교육에서 다뤄야 하는 피아노 테크닉 총 28개를 발췌하여 체크 리스트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연습곡이 요구하는 연주 기술을 복수 응답하도록 하여 코딩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체르니 연습곡 활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경기 지역에 피아노 교수학 전공이 개설된 8개교 9개 대학원 중 4개 대학원의 학생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설문지의 구성을 살펴보면, 교사의 지도 경험에 따른 체르니 연습곡 사용의 필요성과 사용 경험 유무, 체르니 연습곡을 학습하는 학생들의 태도, 체르니 연습곡 학습을 통하여 기대되는 학습 능력 등 총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체르니 연습곡》을 ‘100번’(Op. 139), ‘30번’(Op. 849), ‘40번’(Op. 337)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수준별로 지도할 때 병행 학습 하는 작품 및 교재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에 개방형 문항을 추가하여 복수 응답을 요구하였다.

한편 《체르니 100번 연습곡》을 연주 기술에 따라 분류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출판된 피아노 교수학 관련 문헌 중 피아노 교육에서 다뤄야 하는 기본 피아노 테크닉을 밝히는 문헌에 해당하는 산도르의 『온 피아노 플레잉』,<sup>5)</sup> 안미자의 『피아노 어떻게 배울까』, 브라우튼의 『성

5) G. 산도르 / 김귀현 · 김영숙 옮김, 『온 피아노 플레잉』 (음악춘추사, 2003).

공적인 피아노 지도』(Success in Piano Teaching),<sup>6)</sup> 베스틴의 『성공적인 피아노 지도법』(How to teach piano successfully)<sup>7)</sup>에서 제시된 총 41가지의 연주 기술 분류 중 총 28가지의 항목을 발췌하여 체크 리스트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 체크 리스트를 바탕으로 《체르니 100번 연습곡》에 수록된 100개의 연습곡들에서 요구되는 연주 기술들을 코딩한 후, 수거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는 빈도 분석, 코크란 알미티지 트렌트 테스트(Cochran Armitage Trent test)와 감마(gamma:  $\gamma$ )를 활용하여 ‘상관 분석’을 하였고, 최장 연결법(Complete Linkage Method)을 활용하여 ‘계층적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의 제한점

국내 피아노 교수학 전공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수가 특수 대학원의 경우 최대 50~60명, 일반 대학원의 경우 10명 안팎이다 보니, 본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문 조사에 참여한 연구 대상의 수가 136명에 불과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제한적이다.

초급 수준에 갖춰야 할 기본 피아노 연주 기술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많은 체르니 연습곡집 중 《체르니 100번 연습곡》만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국내 음악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다양한 체르니 연습곡 중에서 피아노 학습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접하는 교재가 《체르니 100번 연습곡》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원래 작품집에 수록된 연습곡의 수가 많다보니 각 출판사의 편집자가 임의로 발췌하여 축소시킨 ‘간추린 체르니 100’과 유사한 제목의 연습곡들이

6) J. Broughton, *Success in Piano Teaching* (NY: Vantage Press, 1956).

7) J. Bastien, *How teach piano successfully*, 3rd ed. (CA: Neil A. Kjos Music Company, 1988).

시중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어 교육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 2. 문헌 연구

### (1) 손가락 학파(Finger School) 시대 체르니의 다양한 연습곡 교재 개발과 공헌

피아노가 존재하고 처음 100년간의 피아노 교수학에는 3개의 공통적으로 인정된 원리가 있었는데, 이들은 1)오직 손가락만을 사용할 것(결과적으로 팔의 윗부분이 고정되어야 한다), 2)테크닉 훈련은 매일 매일 장시간을 요구하는 순전히 기계적인 과정이다, 3)교사는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것이다.<sup>8)</sup> 이처럼 기계적인 손가락 움직임에 집중한 동향을 피아노 페다고지에서는 손가락 학파(Finger School)라고 부른다.

체르니는 오스트리아 빈 태생으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서 손가락 학파를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피아노 교육자이다. 그의 주요 저서인 『피아노포르테의 이론과 실재의 완전 학습』<sup>9)</sup>은 당대의 피아노 지식의 백과사전이었다. 그는 전 생애를 통해 당대의 피아니스트들이 당면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의 모든 문제들을 위해 수천 개의 길고 짧은 연습곡을 썼다. 체르니의 피아노 교육용 교재로서는 《체르니 100번 연습곡》 Op. 139, 《체르니 110번 연습곡》 Op. 453, 《체르니 30번 연습곡》 Op. 849, 《체르니 50번 연습곡》 Op. 740, 《체르니 60번 연습곡》 Op. 365, 《작은 손을 위한 25번 연습곡》 Op. 748, 《왼손을

8) 안미자, 『피아노 어떻게 배울까』, 36.

9) Carl Czerny, *Complete Theoretical and Practical Piano Forte School* (London: R. Cocks, 1839).

위한 24번 연습곡》 Op. 718, 《제1과정 연습곡》 Op. 599, 《매일 연습곡》 Op. 337 등 피아노 교재 개발에 남긴 그의 공헌은 지대하다. 그의 방법은 한없이 반복하여 손가락으로 완벽하게 될 때까지 기계적인 연습을 하는 것이다. 체르니는 우선 테크닉이 음악으로부터 독자적으로 발달해야 하고, 그런 후에 궁극적으로 이 테크닉이 예술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믿었다. 악기와 음악이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처음으로 분명하고도 솔직하게 공표된 것이다.<sup>10)</sup>

베토벤, 훔멜, 클레멘티 등을 지도하면서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서도 명성을 날린 체르니는 비록 다른 피아노 작곡가들과 같이 예술적으로 호소력이 높은 작품들을 만들어 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가 만든 연습곡들은 오늘날까지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익혀야 할 ‘피아노의 바이블’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2) 문헌 조사를 통한 ‘간추린 체르니 100’ 국내 출판 현황

체르니의 다양한 피아노 연습곡들 중 《체르니 100번 연습곡》은 우리나라 피아노 학습자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친숙한 교재 중 하나이다. 다양한 연주 기술들을 제공한다는 교육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100개나 되는 연습곡의 숫자에 학습 부담감을 느끼거나 싫증을 내어 학습 중간에 교재를 바꾸기도 하고 포기하는 경우를 흔히 발견하게 된다. 이처럼 《체르니 100번 연습곡》의 전곡을 모두 학습하는 경우가 거의 드문 교육현실을 반영하듯, 최근에는 대부분의 국내 음악 출판사들이 원래 작품에서 편집자 임의대로 20~40여 개의 연습곡만 발췌하여 유사한 제목으로 수많은 연습곡집을 출판하고 있다. [표 1]은 현재 국내에서 ‘간추린 체르니 100’과 유사한 제목으로 출판된 교재의 종류를 조사한

10) 안미자, 『피아노 어떻게 배울까』, 38.

결과이다.

(표 1) 국내에 출판된 '간추린 체르니 100'의 출판 현황

출판사	제목	저자 · 편집자	출판 연도
삼호뮤직	『해설이 있는 간추린 체르니 100』	범영숙 편저	2003
	『포인트 간추린 체르니 100』	편집부 편	2005
세광음악 출판사	『간추린 어린이 체르니 100번』	편집국 편	2009
	『쑥쑥 체르니 100』	편집국 편	2008
	『즐거운 체르니 100』	편집국 편	2008
	『동화 간추린 체르니 100』	남주희 편저	2008
	『세광 Pre 체르니』	나순희 편저	2006
	『남주희 신나는 체르니 100』	남주희 편저	2004
	『레벨 간추린 체르니 100 Vol. 1 & 2』	편집국 편	2003
	『마스터 간추린 체르니 100』	편집국 편	2002
	『간추린 체르니 100번 연습곡』	편집국 편	1998
	『세광 간추린 체르니 100』	편집국 편	1998
	『체르니 100번 연습곡』	편집국 편	1997
아름 출판사	『플러스 체르니 100』	편집국 편	2011
음악세계	『남남 맛있는 간추린 체르니 100』	박옥희	2010
	『박숙련의 알고 연주하는 체르니 100』	박숙련	2007
	『간추린 동그라미 체르니 100』	강금선	2006
	『나의 새로운 시작 체르니 100』	편집부 편	2002
	『간추린 체르니 100』	편집부 편	1999
	『간추린 음악세계 체르니 100』	편집부 편	1996
태림출판사	『랄랄라 체르니 100』	김순배 편저	2007
	『아이러브 체르니 100』	안혁 편저	2003
	『간추린 체르니 100』	편집부 편	2000
현대음악 출판사	『체르니 100번 연습곡집』	편집부 편	2005
	『이야기 체르니 100』	편집부 편	2004

〈출판사는 가나다 순〉

위에서 소개한 ‘간추린 체르니 100’ 유형의 교재에서 발견되는 ‘선곡의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의 체르니 100번 연습곡 중에서 어렵거나 비슷한 테크닉이 반복되는 곡들은 삭제하고 교재별로 20~40곡 정도의 연습곡을 선별하여 수록하고 있다. 일부는 난이도에 따라 곡을 체계적으로 배열하기도 하고, 난이도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여 연습곡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때 반복되는 테크닉 연습곡의 반복을 축소한 점은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될 수 있으나, 학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높은 난이도의 작품들을 선곡에서 제외시킨 점은 교육적인 측면보다 출판사의 상업적인 영리가 부각된 것으로 우려되는 바이다. 뿐만 아니라 선곡 과정에서 원곡집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연주 기술 습득을 위한 연습곡들이 난이도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불확실하다.

그 외에 일부 교재는 체르니 연습곡 원곡과는 상관없는, 귀에 익은 피아노 소품이나 한국 민요를 기교적으로 편곡해서 수록하기도 한다. 이는 지루해 하기 쉬운 테크닉 연습곡을 흥미 있게 학습시키기 위한 각 출판사의 노력으로 분석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초급 피아노 교재 시장의 특이한 현실을 반영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초급 피아노 교재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바이엘’ 교재를 살펴보면, 원저자 바이엘(Ferdinand Beyer, 1803-1863)의 구성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의 연습곡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래의 의도는 우리나라 학습자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출판사들의 노력으로, 원저자의 작품집에 한두 곡씩 한국인의 귀에 익은 피아노 소품이나 한국 민요를 편곡해서 수록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그 내용과 구성이 원곡과 달라도 초급 피아노 교재이기에 ‘바이엘’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바이엘’이라는 초급 피아노 교재를 가지고, 저마다 조금씩 변화를 주며 수십 년 동안 ‘우려먹기’ 혹은 ‘짜집기’ 식의 관행을 일삼아

은 음악 출판사의 관행을 돌이켜본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체르니 연습곡을 간추리는 유형의 교재 개발이 혹 ‘바이엘 유형’의 우려먹기 식의 교재 개발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된다.

이에 반하여 일부 ‘간추린 체르니 100’ 유형의 교재들에서는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빠르기말과 악상 기호는 물론 작곡자가 의도하는 연주 기술별 학습 목표를 제공하거나, 어린 학생들의 손에 맞도록 손가락 번호를 섬세히 표기한 점 등의 노력은 제한적이긴 하나 피아노 교육의 본질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시도라고 여겨진다.

### 3. 실태 조사 및 연주 기술 분석

#### (1) 《체르니 100번 연습곡》 사용 실태 조사

국내에서 테크닉 교재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체르니 100번 연습곡》의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이다. 우선 설문지의 첫 번째 영역에서는 응답에 참여한 피아노 교사들의 피아노 지도 유형·지도 경력을 알아보았다. 본 조사 연구에 참여한 국내 4개 피아노 교수학 전공 대학원에 재학 중인 총 136명의 응답자들이 실시하는 지도 유형을 조사한 결과 45.6%(N=62)가 개인 방문 지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학원 1:1 지도(42.6%, N=58), 기타(8.8%, N=12), 그룹 지도(2.9%, N=4) 등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응답에 참여한 피아노 교사들의 피아노 지도 유형 · 지도 경력

피아노 지도 유형	빈도수(n)	백분율(%)
개인 방문 지도	62	45.6
학원 1:1 지도	58	42.6
기타	12	8.8
그룹 지도	4	2.9
합계	136	100%

피아노 교사들의 교육 경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도 햇수를 5가지로 나눠 선택형 문항으로 제시한 결과, 응답자 136명 중 39.7%(N=54)가 1~5년 지도 경험을 갖고 있으며, 21.3%(N=29)가 6~10년, 19.1%(N=26)가 11~20년, 16.9%(N=23)가 1년 미만의 피아노 지도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

〔표 3〕 응답에 참여한 피아노 교사들의 피아노 교육 경력

피아노 교육 경력	빈도수(N)	백분율(%)
1년 미만	23	16.9
1~5년	54	39.7
6~10년	29	21.3
11~20년	26	19.1
기타	4	2.9
총	136	100

실제 학생 지도 시 체르니 연습곡을 사용하여 지도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연구에 참여한 136명 중 66.9%(N=91)가 체르니 연습곡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표 4].

[표 4] 실제 피아노 레슨 시 체르니 연습곡 사용 여부

실제 피아노 레슨 시 체르니 연습곡을 사용하여 지도하는가?	빈도수(N)	백분율(%)
예	91	66.9
아니오	45	33.1
합계	136	100

피아노 교육 경력과 체르니 연습곡 사용 여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코크란 알미티지(Cochran-Almitage) 검정 중 선형 대 선형 결합(Linear by Linear Association) 테스트를 통해 교차 분석한 결과, 유의 수준을 0.05로 정하였을 때 양측 유의 확률이 0.025보다 작으므로 교사의 교육 경력과 체르니 연습곡 사용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표 5].

[표 5] 피아노 교육 경력에 따른 학생 지도 시 체르니 연습곡 사용 여부 상관관계

피아노 교육 경력	체르니 연습곡 지도 여부		전체	Cochran Almitage trend test  $Z^2 = 1.474$ ( $p = 0.016$ )
	예	아니오		
1년 미만	13	10	23	
1~5년	33	21	54	
6~10년	19	10	29	
11~20년	23	2	26	
기타	3	1	4	
전체	91	45	136	

학생들의 체르니 연습곡 학습에 대한 흥미도를 조사한 결과 ‘조금 싫증을 내지만 학습한다’라는 의견이 58.8%(N=80), ‘매우 싫어하지만 학습한다’가 18.4%(N=25)로 부정적인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체르니 연습곡을 지속적으로 피아노 교육에서 활용하고자 할 경우,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 내기 위한 지도 방법의 개선이나 변화가 필요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체르니 연습곡을 대체할 다른 교재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표 6].

[표 6] 학생들의 체르니 연습곡 학습에 대한 흥미도

체르니 연습곡 학습에 대한 흥미도	빈도(N)	퍼센트(%)
매우 싫어하지만 학습한다.	25	18.4
조금 싫증을 내지만 학습한다.	80	58.8
잘 모르겠다.	16	11.8
조금 즐겁게 학습한다.	13	9.6
매우 즐겁게 학습하고 있다.	2	1.5
합계	136	100.0

조사 연구에 참여한 피아노 교사들이 《체르니 100번 연습곡》 지도를 통하여 기대하는 학습 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1차 설문 조사에서 선택된 7가지 학습 능력들을 각 항목에 제시하고 5단계 리커트 스케일(Likert scale)에 표시하도록 하였다[표 7].

(표 7) 체르니 연습곡 학습을 통하여 기대되는 학습 능력

(1=전혀 아니다, 2=조금 그렇다, 3=보통이다, 4=대체로 그렇다, 5=매우 그러하다)

체르니 연습곡 학습을 통하여 기대되는 학습 능력	빈도수 (N)	Likert Scale 문항별 빈도					평균 (Mean Rating)	표준 편차 (SD)
		1	2	3	4	5		
화성 분석	136	28	48	39	18	3	2.41	1.029
		20.6 %	35.3 %	28.7 %	13.2 %	2.2%		
초견 연주	136	7	34	23	52	20	3.32	1.154
		5.1%	25.0 %	16.9 %	38.2 %	14.7 %		
테크닉	136	2	8	18	56	52	4.09	0.939
		1.5%	5.9%	13.2 %	41.2 %	38.2 %		
전조	136	38	36	46	13	3	2.32	1.052
		27.9 %	26.5 %	33.8 %	9.6%	2.2%		
즉흥 연주	136	74	26	31	2	3	1.78	0.094
		54.4 %	19.1 %	22.8 %	1.5%	2.2%		
청음	136	39	39	35	19	4	2.34	1.124
		28.7 %	28.7 %	25.7 %	14.0 %	2.9%		
음악적 표현력	134	29	36	27	32	10	2.69	1.259
		21.3 %	26.5 %	19.9 %	23.5 %	7.4%		

본 연구에 참여한 136명의 피아노 교사들의 교육 경력에 따라 체르니 교재 지도를 통하여 기대하는 학습 능력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교

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두 범주형 변량이 순서 범주형일 때 사용하는 연관성 측도, 감마( $\gamma$ )를 이용하였다. 위에서 선택된 7가지 학습 능력들(화성 분석, 초견 연주, 테크닉, 전조, 즉흥 연주, 청음, 음악적 표현력) 중 ‘테크닉’, ‘초견 연주’와 ‘교사의 피아노 교육 경력’ 간의 관계는 90% 신뢰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8, 9].

이때 교사들이 체르니 연습곡 지도를 통하여 기대하는 학습 능력 중 테크닉 영역을 구체적으로 서술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136명 중 90명(66%)의 응답자가 ‘스케일’과 ‘아르페지오’라고 응답하여 피아노 연주 기술에 대해 막연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학습 목표 설정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 주었다.

[표 8] 교사의 교육 경력과 체르니 연습곡을 통하여 기대하는  
학습 능력(초견) 간의 상관관계

(1=전혀 아니다, 2=조금 그렇다, 3=보통이다, 4=대체로 그렇다, 5=매우 그러하다)

교사의 교육 경력	Likert Scale 문항별 빈도 체르니 교재를 통한 학습 능력: 초견 연주						
	1	2	3	4	5	전체	
1년 미만	1	9	5	6	2	23	$\gamma=0.169$ ( $p=0.082$ < 0.1)
1~5년	4	13	5	23	9	54	
6~10년	1	8	7	12	1	29	
11~20년	0	4	5	11	6	26	
기타	1	0	1	0	2	4	
전체	7	34	23	52	20	136	

[표 9] 교사의 교육 경력과 체르니 연습곡을 통하여 기대하는  
학습 능력(테크닉) 간의 상관관계

(1=전혀 아니다, 2=조금 그렇다, 3=보통이다, 4=대체로 그렇다, 5=매우 그러하다)

교사의 교육 경력	Likert Scale 문항별 빈도 체르니 교재를 통한 학습 능력: 테크닉						y=0.203 (p=0.04 < 0.1 )
	1	2	3	4	5	전체	
1년 미만	0	2	3	12	6	23	
1~5년	1	5	10	19	19	54	
6~10년	0	1	2	12	14	29	
11~20년	1	0	2	13	10	26	
기타	0	0	1	0	3	4	
전체	2	8	18	56	52	136	

머그라(Jane Magrath)는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 중급 수준을 ‘블랙홀의 시기’라고 비유하였다.<sup>11)</sup> 그 이유는 중급 수준의 시기가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 학생 지도를 위한 교재 및 레퍼토리가 광범위하여 그 선택이 막연하게 느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들의 잘 알려진 작품들, 또는 잘 알려진 작곡가들의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 등, 중급 수준의 학습자들이 학습할 수 있는 교육 문헌이 무수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곡 한 곡 찾아서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교사들로서는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다단계의 레벨로 구성된 초급 피아노 메소드에 길들여진 피아노 교사들에게는 더욱 부담스러울 것이다. 피아노 교육에 입문하여 시중에 출판된 메소드를 따라 순차적으로 학습해 나아가다가 중급 수준으로 들어갈 즈음, 이 시기에서도 초급 메소드와 같이 다단계

11) Jane Magrath, *The Pianist's Guide to Standard Teaching and Performance Literature* (CA: Alfred Pub Co, 1995), iv.

의 레벨로 구성된 피아노 교재를 학습하길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급, 상급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학습하여야 할 작품은 부채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어 간다. 그래서 이 시기를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 블랙홀 시기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 시기의 학생은 쉬운 곡에서 중간 곡으로, 혹은 쉬운 곡에서 어려운 곡으로 다소 무작위로 이리저리 헤매다가 일부는 상급 수준으로, 또 다른 일부는 평생을 중급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우리나라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초급에서 중급 수준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피아노 문헌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 교재와 레퍼토리를 선택하고 있는 피아노 교육의 현실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권수미는 우리나라 피아노 교육에서 제한적으로 교재 선택을 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초급과 중급 학습을 분류하는 데 선택되는 교재로 《체르니 100번 연습곡》과 《체르니 30번 연습곡》이 암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sup>12)</sup> 그동안 초급 피아노 교재의 대명사로 바이엘 교본이 우리나라 피아노 교육자와 학습자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는 것처럼,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체르니 연습곡에 대한 의존도 역시 상당하리라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한적인 피아노 교재 선택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조사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에게 체르니 교재를 학습할 때 병행하는 작품이 무엇인지 개방형 문항에 서술하도록 하였다. 크게 국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체르니 100번 연습곡》, 《체르니 30번 연습곡》, 《체르니 40번 연습곡》을 학습할 때 각각 병행하는 피아노 교재를 복수 응답하게 한 코딩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0].

12) 권수미, “한국 피아노 교육에서의 반주교재 활용 실태조사,” 315-344.

[표 10] 체르니 연습곡을 학습할 때 병행하는 피아노 학습 교재 조사

병행 교재		체르니 100번 연습곡		체르니 30번 연습곡		체르니 40번 연습곡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하논		32	14.3%	34	13.9%	20	8.9%
부르크뮐러	25 에튀드 op. 100	37	37 16.6%	19	23 9.4%	2	4 1.8%
	18 에튀드 op. 109	0		4		0	
	12 에튀드 op. 105	0		0		2	
소나타네		45	20.2%	66	26.9%	6	2.7%
소나타	일반 소나타 모음곡집	3	5 2.2%	14	32 13.1%	26	95 42.4%
	모차르트	2		11		37	
	하이든	0		2		4	
	베도벤	0		4		18	
	스카를라티	0		0		2	
	기타	0		1		8	
반주곡집		36	16.1%	25	10.2%	11	4.9%
소곡집		28	12.6%	10	4.1%	1	0.4%
테크닉 연습곡	버넘	2	2 0.9%	0	2 0.8%	0	4 1.8%
	맥도웰	0		1		0	
	쇼팽	0		1		1	
	기타	0		0		3	
체즈곡집		9	4.0%	4	1.6%	2	0.9%
J. S. 바흐	인벤션	3	3 1.3%	14	16 6.5%	29	35 15.6%
	신포니아	0		1		1	
	평균율	0		1		3	
	기타	0		0		2	
동요곡집		14	6.2%	1	0.4%	0	0.0%
명곡집		3	1.3%	19	7.8%	15	6.7%
기타 연주곡집		9	4.0%	13	5.3%	31	13.8%
코딩 총합		223	100.0%	245	100.0%	224	100.0%

우선 《체르니 100번 연습곡》과 함께 병행하는 대표적인 피아노 교재로 소나티네(20.2%)와 부르크뮐러(16.6%), 반주곡집(16.1%), 하논(14.3%)이 비교적 고르게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르니 100번 연습곡》보다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체르니 30번 연습곡》을 학습할 때는 소나티네(26.9%), 하논(13.9%), 그리고 소나타(13.1%)가 병행 학습 자료로 자주 사용되고 있었다. 반면에 《체르니 40번 연습곡》을 학습할 때는 소나타(42.4%)를 병행하여 학습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때 모차르트 소나타를 교육 자료로 가장 많이 선호하였으며(38.9%), 그 외 편리하게 다양한 작곡가의 소나타를 묶어 놓은 소나타 모음집을 활용한다는 응답도(27.3%) 상당수 있었다. 하지만 소나타를 병행한다는 응답자 중 기타(8.4%)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고전 시대에 편중된 작품을 교육자료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다.

## (2) 《체르니 100번 연습곡》 연주 기술 분석

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설문 응답자들은 체르니 연습곡을 통하여 다양한 피아노 학습 능력 중 유독 ‘테크닉’과 ‘초견 연주’ 능력 개발에 큰 기대를 가지고 지도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막상 응답자들에게 체르니 연습곡 지도를 통하여 기대되는 학습 능력 중 테크닉 영역을 구체적으로 서술 응답한 결과, 피아노 연주 기술에 막연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병행 교재 선정이나 구체적인 학습 목표 설정에 문제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아노를 지도하는 교사나 학습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체르니 100번 연습곡》에 수록된 100개의 연습곡들이 요구하는 연주 기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체르니 연습곡 지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한된 시간에 피아노를 지도하여야 하는 교사들의 경우, 막연히 학생들에게 악

보에 놓인 음표와 리듬만 정확하게 연주하도록 지도하기보다 짧은 연습곡 각각에서 습득하여야 할 연주 기술, 혹은 지도 목표를 명확히 알고서 교육할 경우, 학습 결과가 더 효과적일 것은 분명하다.

최근 국내 음악 출판사에서 유행처럼 쏟아내고 있는 간추린 체르니 연습곡집들이 난이도별로 다양한 연주 기술들을 고르게 분포시킬 수 있도록 조언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연주 기술 분석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연주 기술을 고르게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원래 작품집에서 반복적인 연습곡을 간추려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분석 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체르니 100번 연습곡》에 포함된 100개의 연습곡을 통해 학습자들이 갖춰야 할 기본 피아노 테크닉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출판된 피아노 교수학 관련 문헌 중 피아노 교육에서 다뤄야 하는 피아노 테크닉을 밝히는 문헌을 수거하여 총 28개의 연주 기술을 발췌하였으며 이들을 바탕으로 체크 리스트 항목을 구성하였다. 각 문헌에서 밝히고 있는 피아노 교육에서 다뤄야 하는 기본 테크닉을 정리해 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피아노 학습에서 다루는 기본 피아노 테크닉

관련 문헌	초급 수준에 갖춰야 할 기본 피아노 테크닉
산도르, 『온 피아노 플레이』	자유 낙하(Free Fall) 다섯 손가락 패턴, 스케일, 아르페지오, 레가토 로테이션(Rotation) 스타카토, 옥타브 순간 밀기(Thrust)
안미자, 『피아노 어떻게 배울까』	온음계적 음계 반음계적 음계 분산화음 옥타브 3도와 6도 이중음(Double notes) 트릴

브라우튼, 『성공적인 피아노 지도』	다섯 손가락 패턴(Well-grounded in five finger position) 손의 확장과 축소(Extension & contraction) 엄지손가락의 회전과 교차(Thumb crossing) 모듬화음과 분산화음 트릴
베스틴, 『성공적인 피아노 지도법』	1년차 테크닉: 자세와 손의 위치, 팔 떨어뜨리기, 큰 근육 움직임, 레가토 터치, 스타카토 터치, 선율과 반주의 균형, 프레이징을 위한 손목의 상하 운동, 3도 레가토
	2년차 테크닉: 프레이징, 레가토와 스타카토 터치의 결합, 양손의 균형, 강약의 농도, 성부별 연주, 음계, 3화음과 자리바꿈, 알베르티 베이스
	3년차 테크닉: 손가락 패턴, 손가락 위치 이동, 손가락의 교차, 펼침화음 패턴, 겹음의 레가토, 아르페지오, 손가락 독립, 앞팔 회전, 페달

위에서 제시된 총 41개의 구체적인 피아노 테크닉 중, 총 28개 항목을 발췌하여 구성한 체크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자유 낙하(팔 떨어뜨리기), 다섯 손가락 패턴, 온음 음계, 아르페지오, 레가토, 손의 확장과 축소, 엄지손가락의 회전과 교체, 반음계, 로테이션, 알베르티 베이스, 분산화음, 모듬화음, 아티큘레이션, 스타카토, 이중음(3도와 6도), 반복음, 양손 균형, 트릴, 겹음 레가토, 프레이징을 위한 손목 사용, 주요 3화음과 자리바꿈, 강약의 농도, 성부별 연주, 밀어내기, 꾸밈음, 부정 리듬, 손가락의 독립, 혼합 리듬(2:3, 3:4 등)

피아노 연주가 섬세하고 복잡한 연주 기법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순히 몇 가지로 연구 기술을 정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아노 지도자들은 다소간 상이하더라도, 유사한 기술들을 동일한 그룹으로 묶어 최소한의 대표적인 연주 기술 목록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왔다. 위의 [표 11]을 살펴보면 피아노 학습에서 다루는

기본 테크닉을 산도르는 5가지 그룹으로, 안미자는 6가지, 브라우튼은 5가지로 크게 분류해 놓았다. 이에 반해 베스틴은 피아노 초급 학습자들이 습득하여야 할 연주 기술을 학습 1년차, 2년차, 3년차에 걸쳐 총 25가지의 연주 테크닉으로 세분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위의 총 41가지의 연주 기술 분류 중 일치하는 연주 기술들을 제외하고 총 28가지의 항목으로 체크 리스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 비슷한 테크닉이 중복될 수밖에 없었음을 연구의 제한점으로 밝히고자 한다.

예를 들어 산도르의 두 번째 테크닉 그룹에 속하는 다섯 손가락 패턴, 음계, 아르페지오, 레가토 연주 기술들은 베스틴의 분류에서는 레가토 터치, 프레이징을 위한 손목의 상하 운동, 3도 레가토, 음계, 겹음의 레가토, 아르페지오 등으로 세분화 되었다. 안미자는 음계를 온음계적 음계와 반음계적 음계로 이분하였다. 또한 산도르의 세 번째 분류인 로테이션은 트릴(안미자, 브라우튼), 알베르티 베이스, 앞 팔의 회전(베스틴) 등으로 세분화되었다.

피아노 교육자들 간에 이와 같은 이견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만큼 피아노 연주 기술 구사가 섬세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악곡을 연주함에 있어 단순하게 한 가지 테크닉만 사용하기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연주 테크닉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피아노 연주나 교육에 있어 위의 연주 기술들이 일부 공통적인 기술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호 간에 차이가 있고 연주자 간에 서로 다른 주법으로 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피아노 지도와 연주를 위하여 연주 기술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본 피아노 연주 테크닉 체크 리스트를 구성함에 있어 위의 총 41개의 항목 중 28가지 항목을 발췌하는 과정에서, 일부 연주 기술들의 중복이 불가피하였다. 따라서 각 연습곡마다 요구되는 연주

테크닉을 분석하여 코딩하는 과정에서 복수 응답을 허용하였음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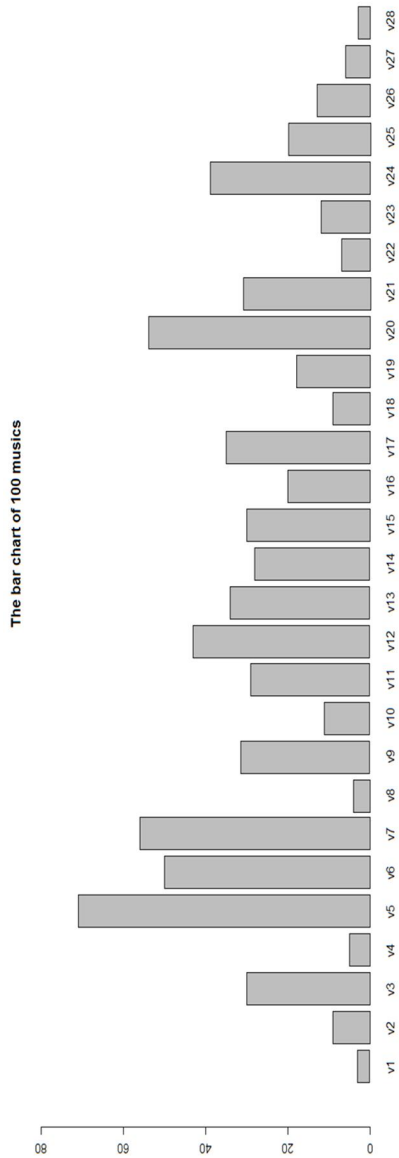
각 연습곡에서 학습하게 되는 연주 기술들을 복수 응답하여 코딩한 결과, 28가지의 연주 기술에 모두 총 669개의 코딩이 수거되었다. 아래 [표 12]는 각 연주 기술에 대한 합을 이용하여 100개의 연습곡에서 어떤 기술이 빈번히 나타나는지를 빈도 분석한 결과이다.

[표 12] 《체르니 100번 연습곡》에서 학습하게 되는 연주 기술 빈도 분석 결과

번호	연주 기술	빈도 (N)	번호	연주 기술	빈도 (N)
v1	자유낙하	3	v2	다섯 손가락 패턴	9
v3	스케일	30	v4	아르페지오	5
v5	레가토	71	v6	손의 확장과 축소	50
v7	엄지손가락의 회전과 교체	56	v8	반음계	4
v9	로테이션	29	v10	알베르티 베이스	11
v11	분산화음	29	v12	모듬화음	43
v13	아티큘레이션	34	v14	스타카토	28
v15	겹음	30	v16	반복음	20
v17	양손 균형	35	v18	트릴	9
v19	겹음 레가토	18	v20	프레이징을 위한 손목 사용	54
v21	주요 3화음과 자리바꿈	31	v22	강약의 농도	7
v23	성부별 연주	12	v24	밀어넣기	39
v25	꾸밈음	20	v26	부점 리듬	13
v27	손가락의 독립	6	v28	복합 리듬(2:3, 3:4)	3

다음은 각 연습곡에서 습득하여야 할 연주 기술에 대한 복수 응답의 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이다. 아래 그래프에서 각 변수의 이름이 길기 때문에 변수명은 V+숫자로 우선 명명하였다[그림 1].

(그림 1) 《체르니 100번 연습곡》에서 학습하게 되는 연주 기술 빈도 분석 결과 그래프



[표 12]와 [그림 1]을 분석하면, 《체르니 100번 연습곡》에 수록된 100개의 연습곡에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연주 기술은 레가토(v.5, N=71), 엄지손가락의 회전과 교체(v.7, N=56), 프레이징을 위한 손목 사용(v.20, N=54), 손의 확장과 축소(v. 6, N=50)로 조사되었다. 브라우튼은 초급 학습자들이 습득해야 할 기본 연주 자세 중 엄지손가락의 회전과 교체, 손의 확장과 축소 기술은 ‘바른 손 모양 형성’을 위한 기본 학습 방법에 포함시키고 있다.<sup>13)</sup>

그 외에 모듬화음(v.12, N=43), 양손 균형(v.18, N=35), 주요 3화음과 자리바꿈(v.21, N=31), 분산화음(v. 11, N=29), 로테이션(v.9, N=29) 기술 등은 반주법을 습득하기 위한 기본적인 연주 기술로서, 체르니 연습곡을 제대로 학습하였을 경우 자연스럽게 반주 만들기를 위한 기초 능력이 습득되어지리라 본다.

### (3) 《체르니 100번 연습곡》에서 유사한 연주 기술 분석에 근거한 군집 분류

위에서 얻어진 《체르니 100번 연습곡》에 수록된 100개의 연습곡들이 각기 요구하는 연주 기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유사한 연주 기술이 요구되는 연습곡끼리 묶어서 군집 분류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같은 군집 안에서 학습 목표가 유사한 작품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교육시킴으로써, 특정 연주 기술 습득을 강화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같은 군집 안에서 연습곡을 선택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동일한 연주 기술의 반복 학습을 줄이고 학습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연주 기술이 요구되는 연습곡끼리 분류하기

13) J. Broughton, *Success in Piano Teaching*, 36-37.

위하여, 각각의 연습곡에서 요구되는 연주 기술들을 총 28개로 구성된 연주 기술 체크 리스트에 복수 응답하여 얻은 총 669개의 코딩 자료를 대상으로 계층적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계층적 군집 분석이란 모집단을 어떤 속성에 의하여 계층으로 구분하고, 그 후 표집 단위를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하여 표집하는 방법으로, 한 군집이 다른 군집의 내부에 포함되거나 군집 간의 중복이 허용되지 않고, 가계 혈통 혹은 나무 모양의 형식을 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래 [표 13]은 계층적 군집 분석을 시행함에 있어 특정 두 군집에 속하는 두 객체들 사이의 거리 중 최장 거리를 이용하여, 다른 두 군집 간의 거리보다 작을 때 그 두 군집을 병합한 ‘최장 연결법’(Complete Linkage Method)으로 유사한 연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연습곡끼리 묶은 계층 군집표이다. 내부적 요소 간의 응집성에 중점을 두는 최장 연결법에 따라 크게 7개의 계층별 대군집으로 분류가 나타났다. 그리고 각 대군집은 [그림 2]에서 나뉘어가지 모양의 공통된 연주 기술을 포함하는 소군집으로 분류될 수 있다.

[표 13] 《체르니 100번 연습곡》에 포함된 100곡의 계층적 군집 분석 결과

군집 종류	개수 (N)	연습곡(No)	군집된 연주 기술
군집 1	2개	98, 99	자유 낙하, 로테이션
군집 2	6개	16, 18, 38, 40, 63, 67	겹음(3음, 6음), 모듬화음, 아티큘레이션, 손의 확장과 축소
군집 3	21개	45, 47, 51, 62, 65, 66, 78	레가토, 로테이션, 분산화음, 알베르티 베이스, 꾸밈음, 양손 균형
		12, 13, 14, 15, 22	레가토, 손의 확장과 축소, 분산화음, 주요 3화음
		23, 73, 74	손의 확장과 축소, 엄지손가락의 회전과 교체, 알베르티 베이스, 꾸밈음, 혼합 리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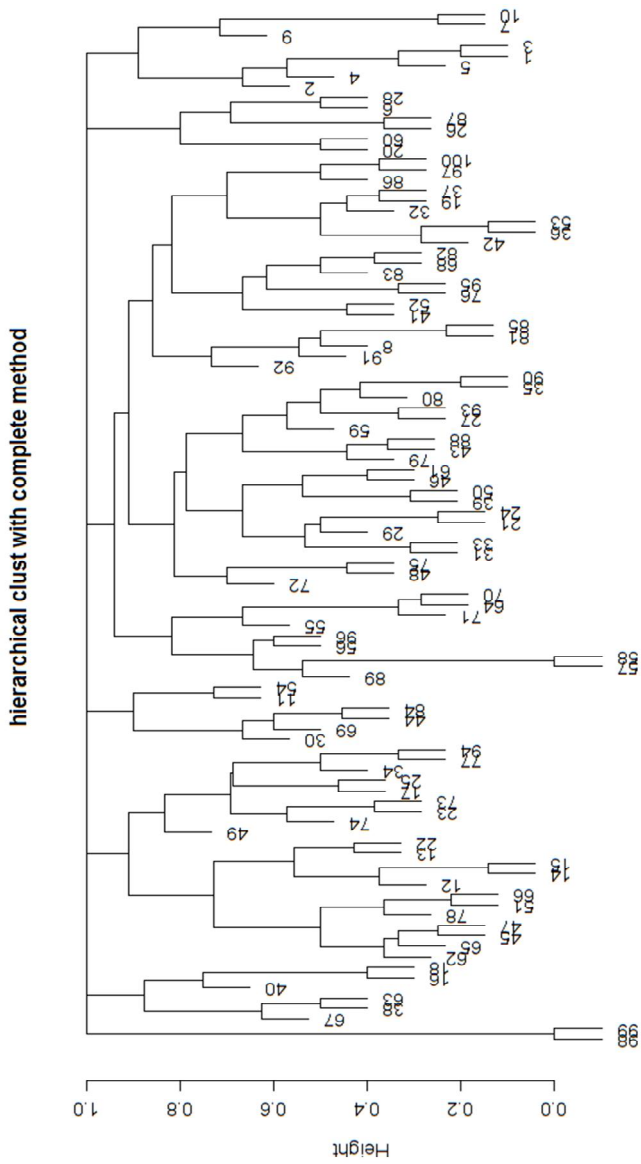
		17, 25	스케일, 손의 확장과 축소, 엄지손가락의 회전과 교체, 로테이션, 알베르티 베이스, 아티큘레이션, 프레이징을 위한 손목 사용
		34, 77, 94	레가토 엄지손가락의 회전과 교체, 로테이션, 알베르티 베이스, 아티큘레이션, 양손 균형, 프레이징을 위한 손목 사용, 강약의 농도
		49	레가토, 알베르티 베이스, 프레이징을 위한 손목 사용, 꾸밈음
군집 4	6개	30, 69	손의 확장과 축소, 밀어내기, 부정 리듬
		44, 84	레가토, 손의 확장과 축소, 겹음(3도, 6도), 성부별 연주, 손가락의 독립
		11, 54	스케일, 엄지손가락의 회전과 교체, 겹음(3음, 6음)
군집 5	51개	57, 58, 89	분산화음, 모듬화음, 아티큘레이션, 스타카토, 반복음, 프레이징을 위한 손목 사용
		56, 96	레가토, 손의 확장과 축소, 스타카토, 반복음, 밀어내기
		55, 64, 70, 71	스케일, 분산화음, 모듬화음
		48, 72, 75	레가토, 모듬화음, 프레이징을 위한 손목 사용
		21, 24, 29, 31, 33	레가토, 손의 확장과 축소, 엄지손가락의 회전과 교체, 모듬화음, 겹음(3음, 6음), 양손 균형, 프레이징을 위한 손목 사용, 주요 3화음과 자리바꿈
		39, 46, 50, 61	레가토, 엄지손가락의 회전과 교체, 모듬화음, 양손 균형, 프레이징을 위한 손목 사용
		43, 79, 88	레가토, 엄지손가락의 회전과 교체, 모듬화음, 스타카토, 겹음(3음, 6음), 스타카토, 프레이징을 위한 손목 사용, 밀어내기

		27, 59, 93,	밀어넣기, 아티큘레이션, 스타카토, 프레이징을 위한 손목 사용, 양손 균형
		35, 80, 90	밀어넣기, 아티큘레이션, 스타카토, 프레이징을 위한 손목 사용, 손의 확장과 축소, 겹음(3음, 6음), 양손 균형
		8, 81, 85, 92, 91,	레가토, 아티큘레이션, 겹음(3음, 6음), 양손 균형, 프레이징을 위한 손목 사용
		41, 52, 76, 95	모듬화음, 프레이징을 위한 손목 사용, 엄지손가락의 회전과 교체, 손의 확장과 축소, 레가토, 밀어넣기
		68, 82, 83	모듬화음, 프레이징을 위한 손목 사용, 임시표, 엄지손가락의 회전과 교체, 손의 확장과 축소, 레가토, 밀어넣기, 겹음 레가토
		19, 32, 36, 37, 42, 53	스케일, 레가토, 엄지손가락의 회전과 교체, 모듬화음, 주요 3화음과 자리바꿈
		86, 97, 100	스케일, 레가토, 손의 확장과 축소, 엄지손가락의 회전과 교체, 임시표
군집 6	6개	20, 26, 60, 87	레가토, 겹음 레가토, 주요 3화음과 자리바꿈, 프레이징을 위한 손목 사용, 성부별 연주
		6, 28	레가토, 겹음 레가토, 주요 3화음과 자리바꿈, 프레이징을 위한 손목 사용
군집 7	8개	1, 2, 3, 4, 5	다섯 손가락 패턴, 레가토, 주요 3화음과 자리바꿈
		7, 9, 10	손의 확장과 축소, 양손균형, 주요 3화음과 자리바꿈

위 분석 결과는 동일한 학습 목표나 가장 유사한 연주 기술을 요구하는 연습곡들을 대군집 혹은 소군집으로 분류한 것으로, 피아노 지도자나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체르니 연습곡을 선택·발췌하여 학습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그림 2].

[그림 2] 《체르니 100번 연습곡》의 연습곡들의 계층적 군집분석을 위한

‘최장 연결법’ 분석 결과



#### 4. 글을 맺으며

본 연구에서 최근 국내에서 쏟아지고 있는 간추린 체르니 연습곡 유형을 분석한 결과, 활용 실태를 조사해 봐야 하는 이유가 드러났으며 분석 결과와 활용 실태를 연계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발견되었다.

국내에서 출판되고 있는 일부 ‘간추린 체르니 100 연습곡’ 유형의 교재들에서는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발견되었다. 반면 체르니 연습곡을 간추리는 유형의 교재 개발이 혹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져 왔던 ‘바이엘 교재 유형’의 ‘우려먹기’ 식의 교재 개발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원곡집을 쉽고 간결하게 편집하다 보니 각 출판사마다 연습곡을 간추리기 위한 선정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곡들을 되도록 배제시키다보니 원곡집이 제공하는 다양한 연주 기술 습득뿐 아니라 기대되는 학습 성취 수준과도 점차적으로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르니 100번 연습곡》을 통해 초급 수준에 갖춰야 할 기본 피아노 연주 기술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출판된 피아노 교수학 관련 문헌 중 초급 피아노 교육에서 다뤄야 하는 피아노 테크닉을 서술하고 있는 문헌들을 수집하고, 총 28개의 연주 기술을 발췌하여 체크 리스트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이어 각 연습곡이 요구하는 연주 기술을 복수 응답하여 총 669개의 코딩을 수거한 후 계층적 군집 분류를 통해 공통된 연주 기술을 포함하는 연습곡들 끼리 대분류와 소분류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 《체르니 100번 연습곡》에 수록된 100개의 연습곡에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연주 기술은 레가토(v.5, N=71), 엄지손가락의 회전과

교체(v.7, N=56), 프레이징을 위한 손목 사용(v.20, N=54), 손의 확장과 축소(v. 6, N=50)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 모듬화음(v.12, N=43), 양손 균형(v.18, N=35), 주요 3화음과 자리바꿈(v.21, N=31), 분산화음(v. 11, N=29), 로테이션 (v.9, N=29) 기술 등은 반주법을 습득하기 위한 기본적인 연주 기술들로서, 체르니 연습곡을 제대로 학습하였을 경우 자연스럽게 반주 만들기를 위한 기초 능력이 습득되어지리라 본다. 그 외에 유사한 연주 기술 분석에 근거한 군집 분류를 시도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크게 7가지의 군집으로 분류가 가능하였으며, 각 군집 아래 공통된 연주 기술들을 제공하는 연습곡들을 밝힘으로써, 피아노 지도자나 학습자가 유사한 연주 기술을 난이도별로 선택하여 고르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였다.

체르니 연습곡 지도를 통하여 기대하는 학습 능력을 조사한 결과, 테크닉과 초견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테크닉 학습에 있어서 일반 초급 수준의 학생들이 습득하여야 할 연주 기술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피아노 교사와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각 연습곡의 학습 목표를 제공함은 물론, 같은 군집 안에서 연습곡을 선택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동일한 연주 기술의 반복 학습을 줄이고 학습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 동시에 본 연구에서 실행한 체르니 연습곡 활용의 실태 조사를 통하여 피아노 교사들이 인식하는 체르니 연습곡의 교육적인 제한점을 파악하였으며, 효과적인 체르니 연습곡의 활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피아노 학습자들이 다양한 난이도와 연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각 출판사마다 간추린 편집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피아노 교사는 지도하는 연습곡의 학습 목표와 습득하여야 할 연주 기술을 제대로 파악하여 효과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

다. 단지 악보를 읽는 조건 학습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연습곡에서 요구되는 연주 기술 습득에 효과적인 연습 방법을 창의적으로 개발하는데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피아노 교사는 체르니 피아노 연습곡을 단지 테크닉 교재로서만 활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포괄적인 음악성을 개발하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교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체르니 100번 연습곡》의 대부분의 연습곡이 16마디 안팎의 짧은 길이와 주요 3화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활용하여, 간단한 화성 반주를 제공한 교사와 학생 간의 연탄 활동 및 청음 훈련, 기존의 화성 구성을 바탕으로 한 학생의 즉흥 연주, 연습곡의 왼손 반주부를 변화시킨 반주법 연습 등은 창의적인 피아노 교사라면 누구든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이다.

유독 국내의 피아노 교육에서 ‘바이엘’ 만큼이나 많은 학습자들에게 활용되고 있는 ‘체르니 연습곡’은 무려 200년 전에 출판된 교재이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출판업계의 ‘간추린 체르니 연습곡’의 우려먹기식의 출판 관행이나 학습자·피아노 교사들의 맹목적인 교재 사용은 바이엘 교본이 100년 전에 출판된 구시대적인 피아노 교재라고 비판하는 데 반해 너무나 관대한 것은 아닌가 싶다. 수입 피아노 교재에 의존하고 국내에서 개발되는 피아노 교재에 인색한 교육 현실에 타협하기 위해 결국 기존 교재를 짜깁기하는 식의 피아노 교재 출판은, 결국 국내 피아노 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21세기, 다양한 특성을 지닌 학습자들의 음악적 이해와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피아노 교재 개발을 위한 국내 피아노 교육과 출판업계 전문가들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논문 및 단행본

- 권수미. “한국 피아노 교육에서의 반주교재 활용 실태조사.” 『음악과 민족』 39 (2010), 315-344.
- 산도르, G. / 김귀현 · 김영숙 옮김. 『온 피아노 플레잉』. 음악춘추사, 2003.
- 안미자. 『피아노 어떻게 배울까』.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7.
- 허명희. 『사회과학을 위한 통계적 방법』. 자유아카데미, 2012.
- \_\_\_\_\_. 『SPSS설문지 조사 방법 기본과 활용』. 한나래아카데미, 2009.
- Bastien, James. *How to teach piano successfully*, 3rd ed. CA: Neil A. Kjos Music Company, 1988.
- Broughton, Julia. *Success in Piano Teaching*. New York: Vantage Press, 1967.
- Czerny, Carl. *Complete Theoretical and Practical Piano Forte School*. London: R. Cocks, 1839.
- D’Arms, Edward. “Contemporary Music project.” *Music Educators Journal* 59 (1973), 68-73.
- Lowder, J. “Evaluation of a sight-reading test administered to freshman piano classe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1 (1973), 68-73.
- Li, Jing. “Rediscovering Carl Czerny (1791-1857) as a composer and teacher.” DMA Thesis, University of Cincinnati, 2003.
- Magrath, Jane. *The Pianist’s Guide to Standard Teaching and Performance Literature*. CA: Alfred Pub Co, 1995.
- Pace, Robert. “Position paper.” *National Conference on Piano Pedagogy* (October 1982), 2-5.

## 참지

“제14회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2위 수상.” 『피아노 음악』 2011년 8월호, 23-26.

## 교재

- 강금선 지음. 『간추린 동그라미 체르니 100』. 음악세계, 2006.
- 김순배 편저. 『랄랄라 체르니 100』. 태림출판사, 2007.
- 나순희 편저. 『세광 Pre 체르니』. 세광음악출판사, 2006.
- 남주희 편저. 『남주희 신나는 체르니 100』. 세광음악출판사, 2004.
- 남주희 편저. 『동화 간추린 체르니 100』. 세광음악출판사, 2008.
- 박옥희. 『남남 맛있는 간추린 체르니 100』. 음악세계, 2010.
- 박숙련. 『박숙련의 알고 연주하는 체르니 100』. 음악세계, 2007.
- 범영숙 편저. 『해설이 있는 간추린 체르니 100』. 삼호뮤직, 2003.
- 안혁 편저. 『아이러브 체르니 100』. 태림출판사, 2003.
- 편집국 편. 『간추린 어린이 체르니 100번』. 세광음악출판사, 2009.
- 편집국 편. 『간추린 체르니 100번 연습곡』. 세광음악출판사, 1998.
- 편집부 편. 『간추린 음악세계 체르니 100』. 음악세계, 1996.
- 편집부 편. 『간추린 체르니 100』. 음악세계, 1999.
- 편집부 편. 『간추린 음악세계 체르니 100』. 음악세계, 1996.
- 편집부 편. 『간추린 체르니 100』. 태림출판사, 2000.
- 편집부 편. 『나의 새로운 시작 체르니 100』. 음악세계, 2002.
- 편집국 편. 『레벨 간추린 체르니 100 Vol. 1 & 2』. 세광음악출판사, 2003.
- 편집국 편. 『마스터 간추린 체르니 100』. 세광음악출판사, 2002.
- 편집국 편저. 『세광 간추린 체르니 100』. 세광음악출판사, 1998.
- 편집국 편저. 『쑹쑹 체르니 100』. 세광음악출판사, 2008.
- 편집부 편. 『이야기 체르니 100』. 현대음악출판사, 2004.
- 편집국 편저. 『즐거운 체르니 100』. 세광음악출판사, 2008.
- 편집국 편저. 『즐거운 체르니 100』. 세광음악출판사, 2008.

- 편집국 편저. 『체르니 100번 연습곡』. 세광음악출판사, 1997.  
편집부 편. 『체르니 100번 연습곡집』. 현대음악출판사, 2005.  
편집부 편. 『포인트 간추린 체르니 100』. 삼호뮤직, 2005.  
편집부 편. 『플러스 체르니 100』. 아름 출판사, 2011

**Abstract**

**Rediscovering C. Czerny's Piano Exercises  
in Korean Piano Education**

Kwon, Sumi

C. Czerny (1751-1857)'s Piano Exercises are one of the favorite teaching materials in Korean piano education. Recently, most Korean music companies have been rushing to publish a brief type of Czerny piano exercises' that eliminate repetitive and difficult exercises from the original Czerny's works. Even though it is popular to Korean piano teachers and students, it is uncertain whether this brief type of Czerny's exercise still contains same level of performance skills that is equivalent to his original work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zerny piano exercises published in Korea to survey how piano teachers are utilizing Czerny piano exercises in their teaching.

In this research, the required performance techniques of each exercise especially in the original Czerny's piano works (Op. 139) was analyzed so as to provide a guideline to Korean piano teachers in utilizing Czerny's teaching materials. Based on this result, the 100 exercises were stratified into 7 group which have similar performance technique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provide the specific teaching goals of each exercise of Czerny's piano works (Op. 139). In addition, the stratified samples will guide piano students to reduce the repetitive rote playing and practice efficiently.

Keywords: piano pedagogy, piano teaching, teaching material, Czerny, performance technique

투고일	심사일	게재 확정일
2012년 4월 30일	2012년 5월 4일~23일	2012년 6월 1일